



금융감독원

# 보 도 자 료



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 행복하게

보도	2025.3.12.(수) 10:00	배포	2025.3.11.(화)		
담당부서	전자금융검사국 검사기획상시팀	책임자	국 장	심은섭	(02-3145-7160)
		담당자	팀 장	손인호	(02-3145-7154)
	전자금융감독국 전자금융총괄팀	책임자	국 장	변재은	(02-3145-8780)
		담당자	팀 장	김석원	(02-3145-8782)

## 금융감독원, 전자금융업자 CEO 간담회 개최

### - 주요 감독방향 설명 및 의견 청취 -

#### I 간담회 개요

- '25.3.12일(수)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업자 CEO 및 핀테크산업 협회 등과 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음
  - 이번 간담회는 금감원내 전자금융업 감독·검사 전담부서 신설에 따른 전자금융업권과의 첫 CEO 간담회로 주요 감독방향과 현안을 설명하고 협조사항을 당부하는 한편,
  - 전자금융업계의 실무상 애로사항과 이슈를 공유하고 업계발전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는 소통의 자리였음
- 아울러, 금번 간담회에서는 기업공개(IPO)를 추진하는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감원 공시심사 담당부서도 참석하여 IPO 관련 업무절차 및 유의사항을 설명하였음

#### 전자금융업자 CEO 간담회 개요

- 일시 / 장소 : '25. 3. 12.(수) 10:00~11:00, 네이버파이낸셜 본사
- 주요 참석자
  - (금융감독원) 이종오 디지털·IT 부원장보, 전자금융감독·검사국장
  - (전자금융업계) 10개 업체\* CEO, 핀테크산업협회(회장)

\* 나이스페이먼츠, 네이버파이낸셜, 비바리퍼블리카,뱅크샐러드, NHN KCP, 카카오페이, 쿠팡페이, 토스페이먼츠, 트래블월렛,페이업(가나다순)

## Ⅱ 간담회 논의 내용

### 1. 전자금융업 현황 및 감독방향

- 소비자들의 디지털 금융 선호와 기술 발전 등으로 전자지급 결제 거래가 급성장하고 전자금융 서비스의 영향력이 갈수록 증대\*

\* 물품이나 서비스의 온라인 구매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고, 결제에 있어서도 전통적 방식보다 간편결제를 통한 거래비중이 점점 더 증대되고 있는 실정

- 이에 따라 국민들의 일상생활과의 밀접성 또한 높아지고 있어 전자금융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안정적 운영의 필요성이 고조\*

\* 온라인 구매나 전자결제 관련 전산장애 발생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등 전자금융과 국민생활과의 관련성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상황

- 이런 변화에 맞춰 금감원은 금년초 조직개편시 전자금융 전담 부서를 신설하였으며, 전자금융업이 혁신을 통해 성장해 나갈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

- 또한, '적발'이나 '제재' 위주가 아닌 '컨설팅 중심의 검사'를 통해 부족한 부분은 개선하고, 모범사례는 공유하는 등 업계의 혁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

- 다만,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정보 유출, 시스템 장애 등의 금융사고나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위법·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할 계획

- 각종 전산 관련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하고 적의 대응하여 소비자의 편의성 제고 및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임

## 2. 주요 당부사항

□ 이종오 디지털·IT 부원장보는 선불충전금 및 정산금 관리, 금융상품 추천 알고리즘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경영진의 관심과 주의를 당부하였음

### ① 선불업자의 선불충전금 및 PG사의 정산자금 관리 철저

- 개정 전금법('24.9월) 시행으로 충전금 별도관리 및 대표가맹점 의무사항 등이 신설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이행 필요
- 티메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PG사의 판매자 정산자금 별도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중이므로 업계의 차질없는 준비 당부

### ② 소비자 선택권을 왜곡·침해하지 않는 알고리즘 구현·운영

- 인공지능(AI) 활용 등으로 알고리즘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가운데, 알고리즘이 플랫폼 또는 금융회사의 이익이 아니라 소비자의 이익을 최우선시 할 수 있도록 지속 검증 필요
- 금감원도 '알고리즘 검사기법 연구반'을 운영하는 등 알고리즘 검사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, 향후 검사시 알고리즘의 적정성 등에 대해 중점 점검 예정

### ③ IT안전성 확보 등 신규 IT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

- 전자금융 서비스는 다수 이용자의 일상과 깊이 관련되면서 '돈'과 '정보'가 함께 이동하는 거래인 만큼, 전산금융사고로 대규모 불편 및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 필요
- 특히 신기술 활용 등으로 발생하는 신규 IT리스크에 대비한 보안통제 강화, 비상시 업무지속성 확보방안(재해복구센터 구축 등) 수립 등 IT안전성 강화에 힘써 줄 것을 당부

### 3. 업계 발언 요지

- **(전담부서 신설 환영)** 그간 전자금융업 전담부서가 없어 감독 정책 건의 등 소통·협력의 기회가 부족하여 아쉬웠던 상황
  - 이에 전담부서 신설을 환영하며 앞으로 전자금융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지원과 관심을 부탁
- **(명확한 기준제시)** 구체적인 기준 제시가 없어 실무적 운용에 애로사항이 있었던 사항들에 대해서도
  - 전담부서가 신설된 만큼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나 해설서를 제공하여 규제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
- **(업권 특성 고려)** 전금융자 다수가 영세하고 업무형태도 다양하므로 일률적 규제체계 적용보다는 합리적인 차등 적용 필요
  - 특히 재해복구센터 구축이나 자금세탁방지(AML) 의무 이행 등에서 고충이 큰 상황이므로 업권 특성에 대한 고려를 요청

### Ⅲ 향후 계획

- 금융감독원은 향후에도 업계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디지털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낡은 감독 관행과 규제를 개선해 나갈 예정
  - 핀테크의 혁신과 기술, 빅테크의 노하우와 업력 등의 제반 장점을 활용하여 업계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,
  - 핵심·취약부분에 대해서는 지속·반복적 점검을 통해 회사가 부족하거나 미흡한 사항을 스스로 개선·시정하도록 유도
  - 아울러, 효율적인 상시감시 및 검사 실시를 통해 소비자 피해 및 불편 유발 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하겠음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<http://www.fss.or.kr>)